제9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

일시: 2010년 12월 8일 (수)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9회 송건호언론상

최승호 · 옥천신문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제9회 송건호언론상'의 수상자로 '최승호 문화방송 프로듀서'와 '옥천신문'을 선정했습니다.

최승호 피디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권력·자본·종교·과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며, 심층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86년 '문화방송'에 입사한 수상자는 95년부터 <PD수첩>에서 여러 차례 일하며, 6·25전쟁 당시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 사건·대형교회의 세습 문제·재벌의 상속·여성 장애인 성폭행·돈세탁·안락사·검찰의 정치 중립 등 대중이 외면하지만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2003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 위원장을 맡은 후, 2005년 <PD수첩>에 돌아와서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방송제작을 맡아, 대기업과 검찰의 유착 의혹, 국적포기자의 대다수가 지도층의 자제들이라는 사실 등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했고, 특히 황우석 박사 의혹을 보도한 후,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관련 취재를 멈추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한 공로로 다음 해 '올해의 프로듀서상'.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산하 '탐사보도협회(IRE)'에서 10개월의 심층탐사보도 교육 과정을 거쳐 2009년에는 취재 프로듀서로 복귀한 후,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세 차례 심층보도를 하였고, 이 중 논란 끝에 금년 8월에 방송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정황을 밝혀내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에서는 군납비리를 알린 제보자를 도와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1당 독주, 견제 없는 지방자치'에서는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와 견제기능을 상실한 지방의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4월 '검사와 스폰서'편에서 검사들이 금품·향응·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검찰 자체 진상규명과 특검 수사를 가능케 했지만, 이어진 보도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사례를 발굴하였고,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특별검사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1989년 9월 창간된 <주간 옥천신문>은 보도과 경영면에서 지역 언론의 모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화와 지역 언론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신문은 신뢰도와 경영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옥천신문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민주 신문을 목표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편집권의 독립 보장, 편집국장 선출제 등을 통해 언론자유를 확립했고, 지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촌지와 향응으로 불리는 관행을 거부하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방권력과 언론이 결탁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막았고, 옥천의 자치단체·의회·권력기관·유력인사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자치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지면에서도 지역 현안과 소식 그리고 주민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튼튼한 독자기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경영면에서도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가독자율 제고, 지역 생활광고 유치, 비용절감 등을 통해 적자 없이 운영하여 언론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옥천신문은 언론개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판매시장 왜곡이 초래한 언론독과점의 문제점을 알렸고, 2003년부터 '옥천언론문화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언론과 언론산업을 객관적이며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전국의 우수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경영과 취재보도를 지원하는 법률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매해 옥천신문은 우수 지역신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9회 심사위원들은 송건호 선생이 남긴 유산 중에서 올해는 언론의 '비판정신'을 심사기준으로 세웠습니다. 해야 할 대상을, 해야 할 시기에 비판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책무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언론기관과 언론인은 많지만 힘과 돈 앞에 당당히 맞서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이는 찾기 어려워져만 갑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두 수상자의 꺾이지 않는 신념과 용기가, 제도권 언론인에서 저항언론인으로 그리고 신문사 발행인으로서 언론의 독립과 편집권의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외길을 걸은 송건호 선생의 꼿꼿한 비판 정신과 맞닿는다고 판단하여 수상자로 선정합니

다.

앞으로도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와 기록자로서 최승호 피디가 오래도록 현장에 남아 '피디저널리즘'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이 상이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뿌리언론의 본보기로서 지역민들이 더욱 믿고 지지하는 신문사로 발전할 것을 믿으며, 이 상이 창간 스물한 돌을 보낸 옥천신문을 축하하는 선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9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위 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 원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

위 원 양승목 한국언론학회장

위 원 김훈순 한국방송학회장

위 원 차재영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위 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수상자 소개

최 승 호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도 따랐지만 결국 50일 파업으로 문화방송은 공정방송의 기틀을 잡았고, <PD수첩> 사태로 해고했던 두 사람도 결국 복직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그 사건은 <PD수첩>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방송에 대한 외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희 <PD수첩>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 간 적은 없었습니다.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것은 여전히 저희 <PD수첩>의 신념입니다. 저희들이 이 신념을 지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감싸주시고 때로는 매섭게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PD수첩> 15주년 특집 방송에서 최승호 피디는 방송을 마치며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던 한 사람이 다음날 황우석 박사 관련 제보를 <PD수첩>에 남겼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후 1986년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가슴 설레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이듬해부터 방송민주화운동의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다. 87년 6월 방송이 왜곡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위군중들에게 야유를 받고 취재차량이 돌에 맞고 발길질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방송현실에 실망했고 가슴 속에 세상에 대한 부채의식을 키웠다. 같은 해 12월 방송사 최초로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88년 8월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방송사 노조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다. 92년 9월부터 시작한 ‘50일 파업’을 통해 ‘공정방송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성과를 노조는 얻었지만, 이 와중에서 최피디는 해고되고 구속되는 선배들을 보며 ‘방송독립’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95년 <PD수첩>에 합류하여 1년간 일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경찰과 치안대가 인민군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을 집단 학살한 경기도 고양 금정굴에서 희생자의 뼈를 무더기를 발굴하여 세상에 충격을 안기면서부터 그의 뚝심 있는 취재는 빛을 보기 시작했다. 팀을 떠났다가 2000년에 복귀하여 취재를 하며 1년을 더 보냈다.

2005년에는 책임프로듀서로서 황우석 사태의 취재를 이끌었다. 의혹을 폭로하자마자 여론의 거센 질타와 정권의 견제를 받은 데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까지 발생했다. 당시 문화방송이 회사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후, 12월 6일부터 방송이 중단되고 프로그램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지만, 의혹제기가 타당하다고 밝혀지고 나서야 다음 해 1월 3일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사건 담당인 후배 한학수피디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특별경호까지 받았고 취재윤리 위반으로 대기발령에 처해진 그는 지난 20년 방송생활을 하며 겪은 것보다 더한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했다. 하지만 이 보도로 이듬해 상복이 터지기도 했다.

“진실은 때로는 계속 참혹하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파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아픔을 느끼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투명성과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 취재윤리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2008년 하반기부터 10개월 동안 자기 돈까지 보태 가며 미국에서 심층탐사보도 기법을 배워 온 덕분인지 2009년에 취재PD로 돌아 온 후 잇따라 대형 홈런을 날렸다.

<착공 1달 전, 기로에 선 4대강>, <4대강과 민생예산>, <나는 고발한다-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신년특집 1당 독주, 견제 없는 지방자치>, <검사와 스폰서> 등 거침 없는 보도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올해 8월 경영진이,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의 시사회를 방송 전에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결국 방송은 한 차례 보류되었다. “제작진에게 왜 시사 요구를 거부하느냐고 묻기보다, 경영진에게 왜 시사를 요구하느냐고 묻는 게 맞다. 사장이 시사를 요구하는 건 그냥 보기만 한다는 게 아니다. 뭔가 고치려고 할 텐데 ‘국장책임제’를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며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강조했다.

이제 후배를 격려해야 할 나이에 이른 그가 지난 4월 자사 노동조합과 인터뷰에서 마음 속 신념을 드러냈다.

“ 우리의 시대나 사회에서 ‘문화방송’이라는 매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체를 장악하려는, 좌지우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그런 시도는 지금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끝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 지금은 아주 물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과거에도 문화방송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권력의 움직임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거기에 항거한 싸움과 파업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센 사람들이 올가미를 씌우더라도 보도를 위해서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그에게 그 길은 아직

도 맘속에 간직한 세상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프로듀서’로 입사해 고달프게 일을 배우는 ‘피로주사’를 거쳐 24년간 일하며 시고 쓴 맛은 본 지금에야 ‘프로줄서’의 경지에 오른 그를 세상은 선이 굵고 심지가 굳다고 한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전하다 보니 손댄 방송이 재미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험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큰 과오 없이 신뢰를 쌓으며 지금껏 버텨온 비결이기도 하다. 사회 각층으로부터 ‘밤길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고 살지만, 그의 밤길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시청자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들만을 무서워하기에 그는 큰 눈으로 세상을 지켜 보며 우리 시대의 진실한 목격자요 성실한 기록자의 길을 가고 있다.

최피디는 백발이 성성해도 현장을 뛰는 서구 언론인들을 부러워한다. 먼 훗날까지 방송에서 그를 보는 건 시청자들의 바램이겠지만, 정작 본인은 그보다는 <PD수첩>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수상자에 대해서 알려면,

거꾸로 선 세상에도 카메라는 돌아간다 (공저)
세상을 깊게 보는 눈 (공저)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 황우석, <PD수첩>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 (공저)
우리들의 현대 침묵사 (공저)
금지를 금지하라 (지승호)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PD수첩> 제작진, 지승호)

수상자 소개

옥천신문

"신문은 찍어야 하는데 제작비가 없어 돈을 꿔와야 했고……. 돌이켜 보면 셀 수도 없는 위기가……. 하지만 1001호를 찍어낸 지금까지 외부압력이나 돈 때문에 신문이 나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이안재 대표이사는 목이 메여 창간 20주년 기념사를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했다.

올해로서 창간 21돌을 맞은 옥천신문은 충청북도 옥천군에 주로 배포되는 주간신문으로서 현재 대판 판형으로 16면 발행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신문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소액을 출자한 옥천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민주' 언론사를 목표로 했다.

1987년 '옥천군 청년애향회' 회장이던 오한홍씨가 소식지 '애향회보'를 내면서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홍성신문' 창간 소식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냈다. 89년 1월 30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천지역신문 창간준비위원회'가 발족한 후, 3월 15일 산림조합 가마니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에 현판을 달고 난로도 없어 석유곤로로 난방을 하며 준비에 매달렸다.

4월 15일 발간한 '창간소식지 1호'에서 피력한 창간의 당위성과 나아갈 방향은 옥천신문의 창간정신이기도 하다.

"옥천지역 주민과 지역소식에 대한 진실하고 올바른 정보전달 매체로서 지역신문은, 일방적 정보전달이나 진실의 왜곡, 편파보도 등으로 주민들을 우민화 하려는 기성언론들의 편향된 시각의 독점체제를 타파하고 지역주민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한 참여의식을 계발하는 참된 길잡이인 동시에 정보 민주화의 '충실한 벗'으로 옥천지역 주민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4월27일 제5차 준비회의에서 '옥천신문'으로 제호를 결정했고, 5월 6일 창립발기인 대회 연후 정부의 등록필증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창간호를 9월 30일에 낼 수 있었다. 설립 자본금 모집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주주로 참여한 222명의 주민들 중 일부는 창간준비위원들과 개인적 인연 때문에 출자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도 소극적이었다. 소액주주로부터 모은 돈은 필요한 5천 만원에 못 미치는 2천7백 만원으로, 완전한 형태의 '군민주

신문사'로 출발하지는 못했다. 1989년 11월 25일 옥천신문사 창립주주총회 통해 주식회사의 틀을 마련하고서야 마침내 신문사 현판을 내다 걸 수 있었다.

신문 같지도 않다고 무시당하던 신문사의 기자들은 타 신문사를 방문하여 경험담을 들으며 기사쓰기를 배웠다. 운전면허도 돈도 없어 그야말로 발로 뛰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취재수첩을 채워 나갔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간지 기자들이 군청기자실 출입을 막자 멱살잡이까지 해야 했던 기자들은 지역언론의 그릇된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91년 3월 '군정홍보예산 문제 많다'는 기사에서 매년 특정신문에 홍보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관련 예산이 삭감 되었고, 이른바 '계도지' 문제를 지적하여 훗날 옥천에서 계도지가 사라지도록 했다. 4월에는 언론인들의 뿌리깊은 촌지 수수 관행을 보도했고, 8월에는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촌지를 받는 기자들의 행태를 폭로하여 '동업자'들의 원성을 샀다.

91년 8월에는 만취한 검사의 행패를 보도했고, 96년에는 군수가 자신의 딸을 군 환경직 공무원으로 특채한 사실, 2000년에는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을 다녀온 사실을 알려 지방권력을 과감하게 감시하고 견제했다.

99년 '조선일보를 해부한다'라는 시리즈를 실어 '조선일보 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이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 절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3년부터는 '족벌언론 퇴진, 지역신문 정상화, 조폭언론 해체, 시장독점언론 규제 입법 등' 언론개혁 요구사항을 주제로 하는 '옥천언론문화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판만 하는 '삐딱한 신문'이 되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는 한편,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단체장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 특히 서울에서 펼쳐지는 정치, 경제 등 거대 주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옥천신문의 지면은 생소하고 놀랍기까지 하다. 읍사무소에서 기르던 황금색 미꾸라지가 사라진 소식부터 초등학생 기자가 화장실에서 똥 치운 이야기까지 철저하게 주민의 생활을 들여다 보는 기사는 높은 구독율과 이어지는 제보와 취재요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면은 항상 지역민에게 열려 있다.

옥천신문은 철저한 언론윤리의식으로 언론계에서도 이름 높다. 기자들이 금품과 접대를 받

지 않도록 했고, 92년부터 95년까지 군청에서 계도지와 광고용 예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공개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했으며, 유력인사에게 받은 취재지원비를 되돌려 주며 주민들께 사죄 드렸다. 진지한 성찰과 솔직한 태도에 감동한 주민들을 열혈독자로 변해갔다.

대다수의 지역신문사가 존립이 불투명한 가운데 옥천신문은 경영면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행부수는 4,600부, 이 중 발송부수는 4,446부 정도이다. 유가부수 인증단체인 한국ABC협회의 조사 결과 전체 독자 대비 유료구독자 비율이 91.5%로 전국 일간지와 주간신문을 통틀어 가장 높다. 광고주가 될만한 업체도 적고 광고시장도 좁고, 정치적 성향도 보수적인 옥천에서 옥천신문의 생존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중견기업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광고를 유치하여 안정적인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 취재기자가 광고 수주나 부수 확장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고, 광고담당 직원에게도 커미션이나 리베이트 없이 고정월급제를 실시해 무리한 광고수주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의 뒤에는 남모를 임직원의 인내와 헌신이 숨어 있다. 창간 후 상당기간 경영진은 무보수로 일했고, 직원들은 박봉을 감수했으며, 신문발송을 위해 우편 띠지를 묶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옥천군민의 덕분이라고 공을 돌린다.

옥천신문은 지방신문 또는 지역신문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 옥천 주민이 주주이자 독자이자 광고주인 동시에 기자가 되는 언론사가 되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진짜 '풀뿌리신문'의 길이다.

오한흥

옥천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 오한흥 전 대표이사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문제아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는 옥천신문을 창간하기 전에는 백수요 꼴통짓을 하는 청년이었다. 청년애향회장으로 일하던 도중 1988년 한겨레신문 옥천분국을 맡아 신문독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부터 사회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 같은 해 충남 홍성에서 지역신문이 창간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이 땅에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빚까지 얻어가며 옥천신문사를 설립했다.

창간 이후 10년 이상 무보수로 일하며 참으로 '돈 안 되는 일'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

을 위해 이 길에 나섰다고 한다. 가족의 지원과 이해, 특히 선보는 날 작업복에 농구화 차림으로 까칠하게 대하던 그를 배우자로 맞이했던 아내의 내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98년 월간조선이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는 기사를 쓰자, 그는 언론개혁운동에 늦깎이로 참여해 조선일보 바로알기와 절독운동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다.

2005년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보유하던 주식을 옥천신문사에 넘겼고 그 의결권은 노조원들이 행사하도록 하고 떠났다.

부당한 일을 보면 멱살잡이도 마다하지 않고, 군청 현관 앞에 이부자리를 펴고 1인 시위를 하는 그지만 두 아들에게는 세상사는 재미를 알아 행복하다고 들려 준다. 지금은 옥천군 동이면 석탄1리 안터마을에서 이장으로 일하고 있다.

수상자에 대해서 알려면,

풀뿌리 옥천신문 (옥천신문사)
고삐 풀린 망아지, 옥천에서 일내다 – 풀뿌리 언론의 희망, 오한흥 (정지환)

축사 - 고광헌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언론자유를 위해 나아 갑시다

언론계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청암 선생님 유족과 재단 이사님들, 수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 최승호 피디와 옥천신문의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불의와 외압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청암 선생의 언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송건호언론상의 시상식을 맞은 오늘, 우리 언론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암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자칭타칭 수많은 언론미디어들이 넘쳐나게 됐지만, 사회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절제되고 책임 있는 언론자유를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론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초과해 넘쳐나는 미디어의 거품 속에 언론자유가 점점 갇혀버리는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최근 몇 해 사이 이 땅에서 언론의 역할은 뒷걸음질을 친 듯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본의 성역은 더욱 강고해 졌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에 외압을 가해오던 권력과 자본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위세를 과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세확장의 욕심이나 점점 가혹해지는 생존 조건에 덜미를 잡힌 언론들은 이에 맞서기는커녕 알아서 눈치보기에 바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언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 송건호언론상을 받는 수상자와 수상기관은 한층 더 빛나 보입니다.

최승호 문화방송 피디가 만들어낸 시사프로그램들은 하나하나가 정치권력, 자본권력, 종교권력, 지식권력 등 사회 여러 부분에 진을 치고 있는 성역과 금기에 대한 도전의 기록들입니다. 진실을 불편해하는 것은 권력자들만이 아닙니다. 대중들도 자신들의 우상과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 진실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도된 여론에 맞서는 것은 더욱 외롭고 힘들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 피디께서는 이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부문 수상자인 옥천신문은 옥천의 한겨레라고 말할 수 있는 신문입니다. 특정한 세력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없도록 군민주 신문으로 출범한 것도 비슷하고, 편집국장선출제로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계에 남아 있는 촌지 관행을 거부x하고, 이런 도덕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21년 동안 지역의 권력기관들을 흔들림 없이 비판하고 감시해왔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 언론들이 사익 추구에 지면을 내주고, 그에 따라 점점 더 주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정한 보도로 주민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유료독자와 생활광고 수주를 늘려 자립 기반을 구축한 옥천신문의 존재방식은 너무나 소중한 모범입니다.

오늘 상을 받는 수상자와 수상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수상자들을 선정해주신 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여섯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 이명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길……

제 9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는 문화방송의 최승호 PD와 지역신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옥천신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언론이 그 정도를 벗어나서 무력과 패배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 언론인의 사표이신 송건호 선생님을 기리는 언론상을 받는 그 의미와 무게가 자못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승호 PD는 올해 동아투위에서 주는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이미 수상한 바 있는데, 최 PD가 당시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방송돼야 하고 특별한 주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일상적이고 당연한 방송프로그램'도 제대로 방송될 수 없고 '당연한 사실보도'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언론상을 받을 후보자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언론자유상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힘든 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정권의 나팔수,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절차상으로나마 민주주의 국가인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야금야금 독재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은근히 반기는 미소조차 여기저기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절에 '당연하고 일상적인' 기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용기, 그리고 1989년 9월 창간된 주간 옥천신문이 지역신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도와 경영면에서 지역언론의 모범으로 버티고 있는 뚝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에서부터 관련단체, 기업, 언론사나 언론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각종 언론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송건호언론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언론인들에게 무엇보다 꼭 받고 싶은 자랑스러운 언론상이며 수상자들에게는 큰 명예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청암 송건호 선생님 스스로가 올곧은 언론인으로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언론인의 사표 '로 추앙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75년 동아광고사태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후배기자들이 겪었던 징계와 해직을 가슴 아파 하면서 편집국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유언론투쟁에 앞장 섰던 용기 있는 선배 언론인으로서,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신 민주투사로서, 한국언론사와 한국현대사 연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학자로서 그리고 월간 ' 말 '지와 한겨레신문 창간을 주도했고 지금의 한겨레신문의 기반을 닦으신 신문발행 및 경영인으로서의 청암 송건호 선생님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실종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언론인들에게는 진정한 ' 참언론인 '의 모습으로 살아 계십니다.

선생님의 뜻을 기려 '송건호언론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후배 언론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선생님의 뜻을 심어주는 청암언론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 9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신 문화방송의 최승호 PD와 충북 옥천신문에 앞으로 더욱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소감 - 최승호 문화방송 <PD 수첩> 피디

아직 희망이,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송건호 선생님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는 것은 제게 과분한 영광입니다.

기관원이 빼라는 기사를 보도하면 다음 날 남산으로 끌려가야 했던 시절, 송건호 선생님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라는 자리에 계셨으면서도 사주의 입장에 서기보다 후배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상을 받는 것은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며 앞으로의 저 자신의 삶에 대한 크나큰 경계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선 뒤 우리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혼탁상은 송건호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을 후배들이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언론계는 다른 어떤 사회 부문보다 더 정권의 낙하산이 활개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도 상관하지 않은 채 대통령후보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한 뒤 그 대가로 전리품을 얻어 챙긴 사이비 언론인들과, 그들이 내려 주는 소소한 당근이나마 얻어먹기 위해 진실에 접근하려는 후배들의 길을 막고 사실을 왜곡하는 소위 언론사 간부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송건호 선생님이 사셨던 때처럼 그 무슨 중앙정보부의 물고문이나 광고탄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한 입 더 먹기 위해,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후배들을 해고시키고, 징계하고, 더 이상 기사를 쓸 수 없는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권과 이들 언론기술자들은 언론 현실을 한 순간에 87년 6월 항쟁 이전으로 돌려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언론기술자 선배들을 따르지 않고 송건호 선생님의 길을 따르는 후배 언론인들이 아직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 출범 후 두 사람의 낙하산 사장을 맞아 온갖 탄압을 받고도 굴하지 않은 언론노조 KBS본부와 지난 3년 동안 쉼 없이 싸우다 마침내 위원장이 해고된 MBC본부, 여러 명의 해고자를 낸 YTN지부 등 언론노동운동진영이 만들어낸 연대의 공간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

게 함께 싸운 언론인들이 힘 모아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상은 우리 언론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싸울 힘이 남아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의 길이란 형극과 수난의 길이다. 사회의 온갖 세속적 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길이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길을 걷고 싶다.” – 송건호

형극과 수난의 길인 것을 뻔히 아셨지만 역사의 길을 걸어가셨던 송건호 선생님의 뜻을 좁쌀만큼이나마 따를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수상소감 - 이안재 옥천신문사 대표이사

<송건호언론상>이라는 족쇄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음에도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이 유선으로, 구두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중의 하나. 비수처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말씀 한 마디가 내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족쇄를 찬 것이지요.”

그 분이 부담감을 가지라고 한 말은 아닐진대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듯합니다.

송건호언론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영광스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시고, 독재정권의 온갖 회유와 압력, 고문을 이기고 언론민주화를 일구었던 선구자. 송건호 선생님의 그 가열찬 일생을 저로서는 헤아릴 도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송건호 선생님이 나고 자란 곳에서 발행되는 옥천신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선정되었다면 그나마 덜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얘기가 나오면 후보 추천 사실은 알렸지만 심사 당일 오전까지도 옥천신문이 선정되리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보니 어안이 벙벙해서 혹시 잘못 들은 얘기는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989년 창간한 이후 첫 번째는 그저 주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실을 하는 건강한 소통매체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편지

같은 신문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희망을 찾자는 나름의 운동과 캠페인도 이루어질 만큼 우리 사회는 다양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춘 제대로 된 인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건호언론상 수상은 비단 옥천신문 한 개 신문만의 영예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시민항쟁으로 획득한 민주주의를 가꾸고, 다듬고, 지방자치제를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으로 1988년 홍성신문을 필두로 탄생한 주간 지역신문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주간 지역신문 종사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대안을 찾고, 작은 희망을 키워나가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작은 출발입니다.

오늘의 옥천신문이 있기까지 초창기부터 고생만 하신 오한홍 전 대표를 비롯, 신문 창간을 주도하신 많은 분들, '신문 같지 않았던 신문'을 키워주고 당당히 전국 주간 지역신문의 반열에 올려주신 4천여 독자, 옥천주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송건호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청암언론재단을 설립하고 언론상을 제정해 이 땅의 민주언론이 발붙일 근거를 만들어주신 선생님의 가족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건호 선생님의 꼿꼿한 언론정신이 면면히 이어져오는 이곳 옥천에서 신문을 만든다는 사실이 옥천신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송건호 선생님께서 주신 '건강한 언론이 되라는 족쇄'. 신문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